

기아자동차 '주 41시간 노동'

토요일 첫주 4시간 특근처리...둘째·셋째·넷째주는 휴무

오상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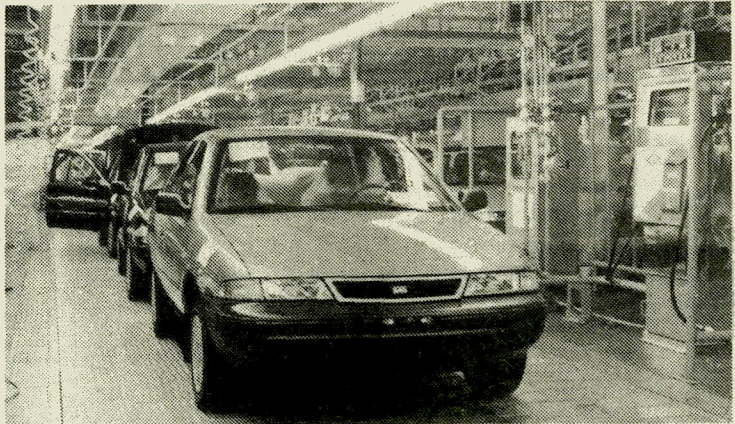
대기업 노조들이 올해 단체협약 협상에서 주 40시간 노동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기아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사실상 '주 41시간 노동제'를 채택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주당 노동시간은 44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노동계의 강력한 노동시간 단축 요구로 일부 사업장에서 1~2시간씩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기아자동차의 41시간제 도입은 획기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기아자동차는 지난 20일 '주 42시간 근무와 격주 휴무제 채택' 등을 포함한 올해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채택해 24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최종 결정한다. 기아자동차 노사가 주 41시간 노동제를 채택하면서 외형상 주 42시간제라고 표기한 데는 나름의 속사정이 있다.

회사 형편상 주 42시간은 일해야 하는 데다 기아의 노동시간 단축이 다른 업체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재계의 눈치도 보아야 한다. 그렇다고 배수진을 친 노조쪽의 요구를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사가 합의한 내용중 토요 근무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보면 △첫주는 8시간 근무하되 이중 4시간



주당 노동시간을 41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기아자동차의 소형차 생산라인.

을 특근으로 처리 △둘째·셋째와 넷째주는 휴무한다는 것이다.

실노동시간은 주 42시간이지만 특근수당을 받지 않는 순수 근무시간을 따지면 주 41시간제가 되는 것이다.

기아자동차는 국내 제조업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 94년 '주 42시간제'를 채택했었다. 회사 형편상 매주 토요일 4시간씩 근무하되 2시간을 특근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기아자동차의 이런 결정은 다른 동종 업체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다. 이번에도 기아자동차는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주 41시간제'를 채택함으로써 자동차업체를 비롯한 다른 제조업 노사교섭에 미칠 영향은 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실제 기아자동차가 주 42시간제를

도입한 이후 현대자동차, 대우자동차, 만도기계 등 10여개 대형 자동차업체 노사가 주 42시간 노동에 합의하는등 노동시간 단축 바람이 불었었다.

올해 임금 및 단협 협상에서도 아시아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20여개 자동차 노조가 주 40시간 노동제를 요구해 아시아자동차의 경우 지난 21일 주 42시간제를 명문화하기로 노사가 잠정합의했다.

한국노총은 올해 단체협약 협상에서 주 42시간제를 도입하도록 산하 노조에 지침을 내린 바 있으며 민주노총은 주 40시간제 도입을 요구하도록 소속 노조에 지침을 주는 등 노동계의 시간단축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